



완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송편 만들기

전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7~8일 이틀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동물 송편 만들기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기원을 앞두고 명절 음식인 '송편'에 대해 알아보고, 요리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를 이해하는 등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특별프로그램에는 완산구 관내 등록기관 12가정이 신청, 어린이들은 색으로 물들인 땅볼 반죽에 송편 소를 꽉 채워 동물 모양의 송편을 만드는 오감 만족 체험활동을 했다.

완산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차경희 센터장(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은 "우리나라 전통 떡 종의 하나인 '송편'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통음식과 전통 놀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의 균형 성장과, 율비를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경찰, 청렴·반부패·갑질 근절 교육 진행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 청문감시인권실은 지난 7일, 전북청 이루리 시민청문관 주재로 중간보리자 청렴·반부패 교육과 서장 주재의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PPT자료를 활용해 반부패 정책 및 관련 법률을 교육하며 부패의 개념, 청렴의 개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김철수 서장은 갑질의 개념 및 유형, 갑질 사례 등을 교육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법령위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대우나 업무 불이익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서장은 "직장내 갑질과 과롭힘은 잘못된 관행 및 폐쇄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황토현농협 소비자 보호 이동상담실 교육

정읍황토현농협(조합장 유경기)이 지난 7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여성조합원 110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법률적 불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동상담실 교육을 진행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소비자·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농촌현장을 찾아가 교육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농협의 대표적인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이다.

이날 진행된 첫 번째 교육은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받기 쉬운 고령 여성들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김광진 과장을 초빙하여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주제로 실질적인 피해예방과 예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건강행복연구원 권오준 박사를 초빙하여 노래교실을 열었다. 스트레스 해소, 웃음치료와 관련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하신 조합원들은 바쁜 영농철에 시름을 내려놓고 마음껏 웃으며 지친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유경기 조합장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전문가와 만나 교육받고 상담 받는 귀중한 시간을 통해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간이 되었다. 황토현농협이 진행하는 다양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만큼 정기적인 교육,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농촌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희생과 도전, 다시 도약하는 JC'

### 제53차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대회 군산서 개최

군산청년회의소(회장 지숙) 주관으로 지난 2~3일 양일간 군산시민급식센터 전시장에서 '희생과 도전! 다시 도약하는 전북지구 JC'라는 슬로건으로 제 53차 전북지구청년회의소 회원대회가 진행됐다.

2일 오전 로데오거리(구 시청 광장)에서 기념시연인 심장세동기 기증 행사를 시작으로 군산시민급식센터 전시장에서 제 46회 자랑스러운 전북청년대상 시상식과 입장식, 그리고 다양한 축하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회원대회에는 김관영 도지사·서거석 교육감·강 임준 군수·신영태 국회의원·박정희 전북도의회 의원·지혜준 군산시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약 1천여명의 전북지구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참석했다.

전북지구청년회의소(지구회장 김광현) 제46회 자랑스러운 전북청년대상 시상식을 통해 전북 발전에 혁신적으로 이바지하고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전북 인을 선정해 지난 3월 김제 회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소방고성공원 등 총 3명에게 시상했다.

지숙 군산청년회의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상호 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고, 조직력 강화를 통해 모든 회원이 한 가족이라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회원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한국쌀전업농 전북 회원 대회 정읍서 개최

제8회 한국쌀전업농 전북도 회원대회가 정읍시의 황토현수련관과 신내체육관 일원에서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한국쌀전업농 정읍시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북의 9개 시·군의 회원 15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업·농민을 위한 법률 및 세무 상식 특강, 쌀 전업농 유공 표창 시상과 사랑의 쌀 기증식, 농특산물 홍보전시 판매, 농기계 및 기자재 전시,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쌀 산업 발전 유공 우수농업인 시상에는 쌀 전업농 정읍시 연합회 고광준 회장이 노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9개 참여 시군 연합회에서 60kg씩 총 540kg의 쌀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개설한 공유저장고에 기탁했다.

이수현 시장은 "이번 행사가 쌀 전업농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고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하이트진로,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홍보 지원

완주군 용진읍에 위치한 하이트진로(주)(공장장 신민철)가 '제11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의 성공을 지원하고 나섰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주)는 완주 대표 향토기업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자사가 생산하는 맥주 1만여 병의 리본에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포스터를 부착해 본격적인 홍보전을 펼친다.

완주군 역시 지역 기업의 제품을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축제 기간에 판매되는 맥주·소주류는 전부 하이트진로(주)의 제품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11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에서는 일명 '로컬맥주포차'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로컬맥주포차에서는 DJ G-park(개그맨 박명수)의 EDM 쇼와 코요테의 축하공연(10월 7일)을 마련해 하이트진로(주)와 함께하는 맥주파티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하이트진로(주)는 우리 지역의 대표 향토기업으로 완주군의 대표축제인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홍보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원주=염재복 기자



정읍시, 한국농촌지도자 전북 한마음대회 성료

지난 7일 정읍에서 개최된 한국농촌지도자 전북도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그간 코로나19, 기상재해 등으로 미뤄져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도내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원 1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군 농특산물 전시와 함께 화합을 다짐하는 한마음어울림대회, 지역간 정보교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우수회원과 유공 공무원 시상과 도내 14개 시군 농특산물 전시물품 전체를 정읍시자원봉사센터에 기부하는 나눔활동도 진행했다.

이날 '희망찬 전북농업을 위한 지도자의 힘찬 결의 탄' 주제로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건설을 위한 지역지도자 역할 실천 다짐과 농업·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자는 다짐대회도 병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남원시,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공모 선정… 도비 1억원 확보

남원시는 지난 5일, 남원시 복지·안전 융합형 IoT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복지·안전 융합형 IoT 통합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AI를 이용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통합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차년도에는 IoT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구 및 타당성 조사와 돌봄 AI 시나리오 개발 등을 시작하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사업 결과를 토대로 AI 상담기술 개발, 온라인 플랫폼 설계 등 본격적인 통합돌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 복지·안전 융합형 IoT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재해 있는 복지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를 기반으로 남원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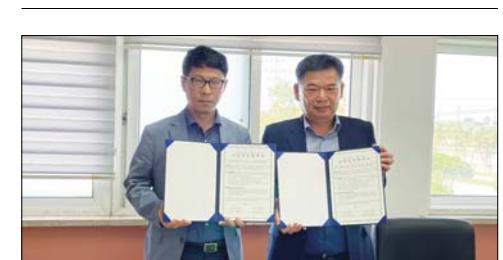
## 전북교육청 교직원수련원, 환경정화 활동 실시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지난 7일 제2차 반려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려견이란 기업·단체 등이 특정 해변 및 연안을 반려동물처럼 거꾸고 관리하는 환경관리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교직원수련원이 부인군에 신청·등록해 운영 중이다.

이번 회차에는 교직원수련원과 익산교육지원청 직원 약 100여명이 참여해 낙조공원에서 변산해수욕장을 따라 송포항까지 벼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교직원수련원 관계자는 "나가오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우리원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러한 해양환경 실천이 환경보호 문화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이백면, 고창군 고수면과 자매결연 체결

남원시 이백면(면장 안동준)은 지난 6일 고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수면(면장 기호민)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양 지역은 앞으로 각 시군의 행사 및 각종 현안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협약식 후 이백면은 고수면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10월 2023년 세계대통제전(10.4~10.9)과 흥부제(10.5~10.9.) 및 남원시 고향시립기부제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또한 이날 이백면은 고수면 보건지소·고창군 기획예산실, 고창군 고인돌박물관을 방문, 드론 세계대전 및 흥부제 흥보와 남원시 고향시립기부제에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박금순 금호공업사 대표, 순창군에 장학금 기탁

순창군은 지난 7일 금호공업사(대표 박금순)가 순창군청을 찾아 지역인재 양성에 써달리며 순창군육전장학회(이사장 순창군수) 최영일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금순 대표는 순창읍 소재 자동차 정비업체인 금호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순창군에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꾸준히 기탁해 지역사회에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성금을 기탁한 박금순 대표는 "첫째 아들이 올해 육전인 재숙을 수료하고 고려대 악학과에 입학해 다니고 있고, 대학에 가니 군에서 대학생 생활지원금으로 매년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순창군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지역인재 양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